

광주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3년내 1200톤으로 확대

영산강환경청·지역기업 협약
기아·금호타이어 등 4곳 참여
탄소배출 4073톤 저감 등 효과
폐기물 처리·재활용산업 지원

광주시가 지역 대표기업들과 함께 산업분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추진, 현재 72톤에 불과한 재활용 전환을 2026년까지 최대 12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8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영산

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민간기업 4개사 등과 함께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기업인 기아오트랜드광주, 금호타이어, 오비맥주, 세방전지에서 매립·소각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전환을 위해 함께 협업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유삼용 기아오트랜드광주 2공장장, 양우천 오비맥주 공장장, 박원재 세방전지 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관계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환경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활용업체 정보 제공 등 배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에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던 폐기물의 실증실험 등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재활용업체를 발굴·육성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제공, 순환자원 지정 등 폐기물 분야 행정 지원, 자원순환 캠페인도 적극 지원한다.

광주 대표기업인 기아오트랜드광주, 금호타이어, 오비맥주, 세방전지는 산업활동으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단계적 재활용 전환에 동참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자발적 ESG(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한다.

광주시와 기업들은 민간 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전환을 2024년 72톤인 재활용 전환을 2026년까지 최대 1200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폐플라스틱 1200톤을 재활용하면 △

탄소배출 4073톤 저감 △환경일자리 3명 창출 △기업 폐기물처리 부담금(소각세) 1400만원 절감 △재활용산업 매출 3억원 증대 △원자재 구입 절감 19억원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순환 이용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민관이 동참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협약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산업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

전남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구직 과정에서의 취업 실패 경험 누적에 취업 포기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은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 중 75%는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취직 초기 적응을 돕는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카페'와 지역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관리자·신입사원에게 청년 진화 조직문화 교육을 하는 '직장적응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거점센터(재)전남인력개발원과 (사)일미리센터를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과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적극 가

동하고 있다.

청년카페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 일상 및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15~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1대1 심리상담, 경력재설계, 청년네트워킹, 취업역량 강화 등이다.

직장적응 지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관리자(CEO·인사담당자 등) 및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진화 조직문화 및 직장 적응지원 교육 사업이다. 협업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온보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수료 후 지속적인 네트워킹 형성 지원 및 멘토링 관리도 제공한다.

각 교육은 신청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되며 희망자는 선착순 모집이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 또는 개인은 고용24(www.work24.go.kr)이나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지역 기업의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홍보·판로·컨설팅 등 지원

전남도는 오는 9월6일까지 2024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조기 발굴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기간(3년)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격 부여 외에도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기업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11월께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61-276-1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전남도는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사육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환 유예는 배합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경영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환유예 대상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79개 한우농가로, 이들은 총 33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 희망 축사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서 오는 9월5일까지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10월31일까지 대출받은 금융기관(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신청해 대출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오지현 기자



남구 마을활동가 공론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마을활동가 등이 28일 임암동 어반브룩 회의실에서 열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논의 및 방향 모색을 위한 '2024 마을활동가 공론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무등산수박·김치·전통주, 대구국제식품전 간다

12개 업체 제품 '달빛동맹관' 전시
시식부스 운영...광주식품대전 교류

무등산수박, 김치, 전통주 등 지역대표 농식품이 대구를 찾아간다.

광주시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열리는 '제24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무등산수박, 김치, 장류, 부각, 제빵, 차, 전통주, 가공식품 등 12개 지역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11번째 두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전에 '달빛동맹관'을 통해 식품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달빛동맹관'에서 광주와 대구 양 도시의 농식품 전시·홍보와 함께 무등산수박 포토존 운영, 대표음식 체험·시식행사가 열린다.

또 10월 열리는 제31회 광주김치축제와 광주식품대전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달빛동맹

최권범 기자

전남도, 전복 가격 하락에 어민 수출 지원

13개국 18개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전남도가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어민을 돕기 위한 전복 수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3개국 18개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 촉진행사를

추진하고, 해외 상설판매장에 입점한 제품의 거래처 확대를 위한 판촉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도비 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상설판매장을 운영해온 국내 또는 현지 운영사로, 지원받는 운영사는 지원금의 3배 이상 농수산물 수출해야 한다.

이번 판매 촉진행사에선 전북 외에도 김, 미역, 젓갈, 한과, 고추장, 된장, 유자차 등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도 선보인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 진기이던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전남 우수 농수산물품의 판촉행사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국인에게 남도의 맛을 알려 전남 식품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오감 만족 농촌체험 운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융복합 사례 교육 참여자'를 29일부터 120명 모집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해 마련됐다.

쌀·꿀·매실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촌현장에서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이 진행되며, 지역 농업·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은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6회로 진행되며, △

쌀찜캐스데라 △구움찰떡 △허니와인 △매실장아찌 만들기 등을 체험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광주광역시바로예약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인원은 1회당 선착순 20명 등 총 12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융복합지원팀(062-613-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기자